

### 공무원 줄이면 뭐하나

중앙부처 산하기관 직원 끌어쓰기 극심

상당수의 정부부처가 산하기관 직원을 과다하게 파견받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어 정부의 공무원 조직 축소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가 18일 한나라당 김대원 의원에 제출한 '정부부처 민간전문가 파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24개 중앙부처가 공기업 등 산하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직원 수는 358명에 달했다.

국토해양부가 주택공사로부터 35명, 토지공사로부터 30명 등 93명을 파견받아 가장 많은 파견직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38명), 보건복지가족부(31명), 중소기업청(29명), 지

식경제부(21명)가 뒤를 이었다.

김대원 의원은 "행안부가 파견 인력 358명 가운데 126명에 대해 불필요한 파견이라고 판단하고 복귀 지시를 내렸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아직 '출장' 명목으로 파견 청사로 출퇴근하며 부처 업무 보조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하기관들이 공기업 구조조정 등의 정보 수집이나 이해관계 '로비 톨로'로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직원 파견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노려 부처에서 산하기관 인력을 마음대로 끌어 쓰고 있는 것"이라며 "작은 정부가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한미 FTA, 현명한 협상 아니다”

오바마 “美 자동차에 불리” 공개 비판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16일(현지 시각)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현명한 협상(smart deal)'이 아니라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뒤 처음으로 한·미 FTA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오바마는 앞서 민주당 후보로 결정되기 전인 지난 달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를 '아주 결함있는 FTA'라고 비판하면서 의회에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지 말고 재협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오바마는 이날 미시간주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경쟁을 환영하지

만, 미국의 경제정책이 강력하고 현명한 무역정책에 의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나는 자유무역이 미국 소비자들의 돈을 절약하고 미국 수출업자들의 사업을 일으키며 전세계적으로 부(富)를 확대한다고 신봉하지만, 부시 대통령이나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존 매케인 의원처럼 어떤 무역협정에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미 FTA를 언급, "한국이 수입관세의 차를 미국에 수출하

면서 미국차의 한국 수출은 수천대로 계속 제한하도록 하는 협정은 현명한 협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미 FTA를 비판했다.

그는 또 "노동과 환경에 대한 합의가 없는 자유협정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바마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돼 공화당 매케인 후보와의 본선 대결이 본격화된 지 2주만에 한·미 FTA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부시 대통령 및 경쟁자인 매케인과 차별화함으로써 미국 노동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바마는 매케인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부시 집권 3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미국 미시간 프린트 케터링 대학에서 연설하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 미국인 못가는 세계적 절경 1위는 금강산

휴가 시즌을 맞아 미국인들이 찾아가기 어려운 세계적 절경 5곳 중 1위에 금강산이 꼽혔다.

18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미국인에게 사실상 금지된 대표적인 절경지로 북한 금강산, 쿠바 바라코아 해안, 소말리아 모가디슈 해안, 이란 페르세폴리스, 미얀마 만달레이 등을 선정했다.

금강산은 '때론 지 않는 영적인 피서지'로서 절묘한 자연미와 유명한 불교 사찰, 하이킹 코스, 거대한 폭포, 다양한 계곡과 백사장 등을 갖추고 있다고 포린폴리시는 전했다.

미국인들이 북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있지만 중국과 한국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방문 기간 내내 원칙적으로 격리, 감시받는다. 북한이 미국인 단체 관광을 허용한 상태지만 통상 평양 시내 및 인근 지역으로 제한돼 있고 금강산은 출입 금지돼 있다.

6·25 정전 협정이 맺어진 1953년 이후 북한을 방문한 미국인 관광객은 500명이 채 되지 못했다. 미 외교 공관이 없어 '스탈린식 악명높은 비밀경찰'과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기 힘들다.

쿠바 바라코아 해안은 1511년 스페인 정복자들이 설립한 가장 오래된 정착촌으로 인근에 콜럼버스가 1492년 최초로 상륙한 것으로 여겨진다. /연합뉴스

### 北경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작년 경제규모 남한의 36분 1...격차 확대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작년에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의 지난해 경제규모는 남한의 36분의 1로 전년(35분의 1)에 비해 남북한간 격차가 다소 확대됐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7분의 1로 전년과 같았다.

한국은행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를 발표했다.

◇북한 경제 악화, 성장률 마이너스 2.3% =북한 경제의 작년도 실질 GDP는 전년보다 2.3% 줄었다. 이는 전년의 감소폭인 1.1%에 비해 악화된 것이다. 한은은 작물생산 감소로 인한 식량부족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GDP 성장률은 지난 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하다가 2006년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연도별로는 1999년 6.2%, 2001년 3.7%, 2003년 1.8%, 2004년 2.2%, 2005년 3.8% 등이었다.

◇남북한 경제력 차이는 =북한의 명목 GNI는 작년에 24조8천268억원으로 남한의 902조5천413억원과 비교하면 36분의 1에 머물렀다. 1인당 GNI는 107만원으로 남한의 1천862만3천원에 비해 17분의 1에 그쳤다.

북한의 수출은 9억2천만달러로 남한 3천714억9천만달러에 비하면 404분의 1이었고, 북한의 수입은 20억2천만달러로 남한(3천568억5천만달러)의 177분의 1로 계산됐다. /연합뉴스



17일 차량 폭탄이 폭발한 이라크 바그다드 지역에서 경찰관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사고로 최소한 51명이 사망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 이라크 또 폭탄 테러 51명 사망 75명 부상

이라크 바그다드의 봄비는 시장 구역을 17일 강력한 차량 폭탄이 폭발하면서 최소한 51명이 사망하고 75명이 부상했다.

차량 폭탄은 바그다드 북서부 시아파 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알-후리야의 시장 근처에서 터졌다.

폭발 사건이 발생하기 전 시장은 사러는 주민들로 혼잡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51명이 사망하고 75명이 부상했으며, 이 같은 사상자 수는 최근 수 개월 동안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폭파로 근처 20개 상점에 화재가 났고, 건물들이 파괴돼 무너졌으며, 차량이 파손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전력이 끊겼다고 정보소식통은 말했다. /연합뉴스

고유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는 경제난국의 돌파구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 방안'이 서울에서 공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 세계 42개국 장관 및 정부대표단, 민간 글로벌 리더, 국제기구 등 총 3천여명이 참가한

### OECD 장관회의 '서울선언서' 채택 폐막

고유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는 경제난국의 돌파구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 방안'이 서울에서 공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 세계 42개국 장관 및 정부대표단, 민간 글로벌 리더, 국제기구 등 총 3천여명이 참가한

'서울 OECD 장관회의'에서 '서울 선언문'을 채택한 뒤 막을 내렸다. 18일 밝혔다. OECD장관회의는 정보통신 기술 부문에서 혁신과 투자 그리고 경쟁을 지원하는 정책 및 규제 환경을 통해 인터넷 경제를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천명했다. /연합뉴스

여름방학 공무원시험 합격전략 무료 설명회

일시: 6월 28일 15:30-18:30

당일합격! 전공별 1:1 맞춤강의! 무료등록!

7월 1일

한빛 공무원학원

해피투게더 4050싱글 열차

우리는 행복을 함께 추구합니다!

주요이벤트

- 장바구니 할인 이벤트
- 주요부품 할인 이벤트
- 특별 할인 이벤트
- 특별 할인 이벤트

문의: 527-3388

광주·전남 기능장학

가발

최신제품 70만원

초슬림!!

귀하의 헤어스타일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문의: 062-575-5858, 072-4522